

'전주, 기억의 씨앗으로 꽃피다'

시, 5월 3~17일 전라감영 내아서 일제강점기~1970년대 담은 '전주 기록 사진 전시회' 개최

전주시민들이 간직해온 기록 사진을 통해 전주의 역사와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린다.

전주시는 오는 5월 3일부터 17일까지 전라감영 내아에서 조선왕조 발상지 관련 기록물과 전라감영 관련 기록물, 근현대 전주 옛 사진 등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의 기록 사진을 전시하는 '전주 기록 사진 전시회'를 진행한다.

전주의 풍경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시민 기증 기록 사진 8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풍남문과 경기전, 풍패지관, 조경단, 향교, 오목대, 이목대, 전라감영 선화당 등 오랜 세월 전주사람들의 삶과 기억이 담긴 문화유적지의 옛 모습과 시대상이 담긴 사진을 관람할 수 있다.

주요 전시 사진은 △1910년 전라감영 선화당 사진엽서 △1910년 덕진공원과 서문외시장 △1930년 풍패지관 △1937년 오목대와 전주역 △1938년 전주유치원생들의 덕진나들이 △1940년 경기

내 정자각 등이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시민들의 삶의 흔적과 도시변천사를 알 수 있는 △다가공원역에서 바라본 전주시가지 △오목대를 지나는 증기기관차 △전라선 철길이 지나가는 한벽터널 △자만동 풍경 △어버이날 기념 거리 행진 등 옛 시절에 대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다채로운 기록 사진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시 개막일인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주 기록 사진 2점을 가증하는 자리도 마련되며, 관람객을 위해

전주시, 산하기관 인권 실태조사 실시

10월 11일까지 316개 기관 대상

전주시가 출연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설 등 시 산하기관의 인권 현황과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는 29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8개 출연기관과 260개 사회복지시설, 48개 민간위탁시설 등 316개 기관,

26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정기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대면 인권 실태조사를 추진해왔으나 대상 인원 대비 부족한 조사 인력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드러난 대면 조사의 한계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시는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한 익명 온라인 조사를 통해 유사 기관별 현황을 파악하고, 기관의 성격에 따른 현황 파악 및 개선책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경험 △조직문화 △내부 구

전주시설공단, 경영수지 분석·향상 보고회 가져

유휴시간대·공간 활용 시설 활성화·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 아이디어 논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은 안정적 세입원 발굴을 위한 경영수지 분석 및 향상 보고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임원과 주요 사업 부서 중간관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일선 사업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다.

공단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 경영본부와 시설본부로 이원화하고 안정적인 세입원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 발굴, 검토, 추진을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계화해 추진 동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주시설공단은 안정적 세입원 발굴을 위한 2024년 경영수지 분석 및 향상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유휴시간대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설 활성화, 체육 종목별 프로그램 개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또 사내 전자 게시판을 통해 '한 줄 아이디어 제안'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공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보고회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의 실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해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지역기업의 사명인

공공성과 함께 경영 재정의 건전성을 위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태양광 수사' 건설사 대표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

실종 13일만에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도내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의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

29일 임실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사 대표 이모(60대)씨에 대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진행한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6시45분께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는 뉴시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면에서 약 3m 거리에 있던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경찰은 이씨가 사라지기 전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숨진 시신은 이씨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15일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집을 나섰다.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씨는 최근 새만금 육상 태양광 선정과 관련한 특혜 의혹으로 강임준 군산시장과 함께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뉴시스

전주·완주 주요관광지 한 번에

5~11월 매주 금·토·일·공휴일 시티투어버스 운행

전주시와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가 오는 5월부터 운행된다.

전주시는 관광객 유치 효과 극대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라고 29일 밝혔다.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는 전주시의 팔복예술공장과 전주한옥마을, 완주군의 오성한옥마을과 삼례문화예술촌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테마형 상품이다.

시티투어버스는 오전 9시 30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탑승해 팔복예술공장·팔복동 철길, 전주한옥마을 및 자유 종식, 오성한옥마을, 삼례문화예술촌·비비정을 관람 후 되돌아오는 코스로 운행된다.

시티투어버스 이용 방법은 출발 하루 전까지 (유)하늘관광으로 전화(063-284-7200)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성인(20세 이상) 1만

원, 경로(65세 이상)·장애인 8000원,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5000원이다. 단, 관광지 입장료와 체험비, 중식비 등은 개별 부담해야 한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통해 양 시군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주·완주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전주와 완주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는 29일 전주중남중학교에서 2024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했다.

전주완산소방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29일 전주중남중학교에서 2024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현장활동을 위한 기초체력을 측정함으로써 재난 현장에서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체력검정은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양복오래달리기 까지 총 6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의 기초 체력은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와 직결된다"며 "본인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평소 꾸준한 자기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